

곤충학자가 들려주는 '마이크로 코스모스'

세상에 사라져야 할 곤충은 없어

김태우 지음



“매뚜기 선생님”으로 널리 알려진 곤충학자 김태우 박사(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관)는 초등 6학년 여름 방학때 풀무치를 처음 만난 후 곤충세계에 매료됐다. 눈앞에서 땅을 박차고 도망가는 풀무치 모습이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 ‘최애 곤충’으로 삼아 곤충연구의 길로 들어섰다.

한국에 2만 종, 전 세계에 90만 종이 서식하는 작은 생명체, 곤충. 우리는 일상에서 접하는 곤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저 ‘곤충을 바라보는 관점’은 해롭고 더럽고 무서운 ‘벌레’로만 여겨 박멸하려 애쓴다.

“곤충은 동식물을 먹고 사체를 분해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나 개구리 등 더 큰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꽃가루받이를 도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한다.”

저자는 신간을 통해 “곤충은 타고난 본성대로 살 뿐 죄가 없다”, “모든 곤충은 독특하고 특별한 생명체이며 사라져야 마땅한 곤충은 없다”고 말한다. 젊은 곤충학자가 크게 7개 장(章)으로 나눠 들려주는 ‘마이크로 코스모스’ (소우주)의 세계는 새롭고 매력적이다. 집계별 레를 직접 키워며 관찰하고 기록하는 저자의 어린 시절을 비롯해 곤충의 이름유래, 곤충학계를 빛낸 인물들 간의 가상 대담, 곤충학자의 일상, 해외 곤충연구자 교류에 이르기까지 학술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독자는 저자의 관찰일기를 통해 곤충을 새롭게 인식

하게 된다. 함정(개미지옥)을 파놓고 걸려든 개미 등을 잡아먹는 개미귀신은 우화(羽化) 단계를 거쳐 명주잠자리로 변신한다. 개미귀신은 명주잠자리의 유충(애벌레)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소금쟁이와 섬서구매뚜기, 희시무르귀뚜라미 등 곤충이름 유래를 밝히며 “이 시대에 우리 생물 이름의 뜻을 조명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문화를 기록해 후대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희시무르귀뚜라미의 경우 북한말 ‘희스무레’ (색깔이 조금 열게 드문드문 허연 모양)에서 왔음을 어렵게 밝혀냈다.

누에-꿀벌, 곤충학자(석주명-조복성), 곤충학계를 빛낸 ‘충인’(蟲人)간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4장 ‘티키타카’가 단연 톱보이다. 신사임당(1504~1551)과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1647~1717)은 시공간을 달리했지만 ‘초충도’(草蟲圖)라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나비를 연구한 석주명(1908~1950)과 하늘소 등 곤충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한 조복성(1905~1971)은 한국 곤충학의 토대를 다진 1세대 곤충학자였다.

곤충의 존재는 6번째 대멸종 위기에 놓인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다. 무엇보다 저자는 뜻밖의 길 앞잡이와 청풍장님준민지벌레 등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사라져가는 곤충들을 통해 “생태전환의 시대에 곤충과 공존과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은 앞으로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숙제이다”고 강조한다.

또한 요즘 곤충을 좋아해 키우거나 야외에서 관찰하기를 즐기는 곤충호인, ‘곤덕’(곤충덕후)들이 늘고 있다. 밤중에 불빛을 보고 날아든 곤충들을 보며 ‘곤명’을 즐기고, 연구자들에게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매뚜기 등 정보를 제공한다. 독자 스스로 25개 항목의 ‘곤덕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곤충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책을 덮을 때면 곤충들이 ‘작지만 소중한 생명체’로 새롭게 다가온다. 곤충학자의 바램은 ‘시민



독일 곤충학자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이 남미 수리남을 여행한 후 펴낸 ‘수리남 곤충의 변태’ (1705년)에 실린 나비 삽화. <위키미디어커먼즈 제공>

과학문화 정착’이다.

“지식의 바탕에 생명체에 대한 애정(Biophilia)이 있으면 좋겠다. 곤충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소소한 탐구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민과학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한국경제신문·1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나’의 존재와 그 의미,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데 걸라잡이.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꿈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넣는다. 모든 것에 마음을 열거나 집착하지 않기, 침묵으로 포용하는 법,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정의로 독자들을 성공과 내면적 평화로 인도한다. <김영사·1만6800원>

▲마흔에는 고통을 받아쓰기로 했다=인간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삶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사랑의 경이로움, 독서, 인간관계, 철학 등은 도움이 된다. 삶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방법,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도 책은 고민한다. 비루한 죽음과 위대한 죽음의 차이, 죽음의 자각과 실존성의 회복 등 죽음을 매개로 인간의 올바른 존재 방식을 모색하고, 근원적인 삶의 의미를 갈구한다. <생각정거장·1만8000원>

▲우리가 동물의 꿈을 볼 수 있다면=반려동물이 꾸는 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떨까. 동물의 꿈에 얽힌 과학연구는 전기생리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금화조, 제브라피시 등 다양한 종에 걸쳐 진행돼 왔다. 신경해부학적, 행동주의적 증거를 토대로 ‘동물도 꿈을 꾸다’라는 명제는 어느 정도 타당해졌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동물의 자아’, ‘동물의 자각몽’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 원숭이 사례연구를 통해 이 같은 이슈들과 윤리적 맹점을 톺아본다. <위즈덤하우스·1만9800원>

▲이아생트의 정원=‘반바지 당나귀’, ‘이아생트’에 이은 ‘이아생트 3부작’의 완결작. 고아 소녀 이아생트는 오랜 방황 끝에 마법사의 주술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만났다. 콩스탕탱을 후계자로 삼으려다 실패한 뒤, 펠리시엔을 데려가 천국 동산을 흥내 내는 야심가 ‘시프리아’의 계획이 수포가 된 후 펼쳐지는 이아생트의 여정을 그렸다. 저자는 ‘현대판 바실라르’라는 평처럼 자신만의 세계를 상상력을 통해 재현한다. <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우리 동네는 안 돼요=열두살 어린이 환영이의 동네에는 ‘특수학교를 짓기 바라는 주민들’, ‘대형 스포츠센터를 지으려는 주민들’이 공존한다. 이들은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갈등 ‘남비 현상’을 빚고 있다. 순수한 어린이 환영이의 시선을 통해 주인공과 똑같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 <지학사아르북·1만4500원>

▲우리는 비무장지대에 살아=일러스트와 동시를 접목해 비무장지대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마주한다. 제비꽃자국을 소재 삼은 ‘눈 크게 뜨고 잘 봐’, 참배암차츰기를 그린 ‘오해 풀기’, 황소가리를 모티브

삼은 ‘황금빛 친절’ 등 다양한 동시들이 실렸다. 이뿐만 들어도 생소한 동물들을 소개하는 한편 통일과 분단의 아픔을 DMZ 속 자연을 매개로 그린다. <뜨인돌어린이·1만6000원>

▲한반도 최초의 히어로들=아이언맨, 슈퍼맨 등 현대판 ‘슈퍼 히어로’들이 있기 이전, 우리나라에도 비범한 영웅들이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고조선의 단군왕검부터 활초기의 달인 고구려의 주몽, 한 번에 여섯 명이 태어난 ‘전설’ 가야 김수로왕 등 건국 신화에 담긴 이야기들은 허무맹랑한 면도 있지만, 타당한 상징과 은유로 가득하다. <서유재·1만5000원>

법정 스님이 전해주는 삶의 지혜

진짜 나를 찾아라

법정 지음



“어느 나라건 소위 국민 총생산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민의 총행복량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중략) 나는 지금의 불행을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경고가 나타났을까요. 가슴은 없고 머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회전만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인간의 신뢰와 성실성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옵니다.(중략) 인생에서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안으로 흥분분해지는 일과 같습니다.”

1997년 6월 7일 법정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광주·전남 모임에서 했던 말은 2024년 5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날 강연 말미에서 스님은 이렇게도 말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

라 광주라는 이름은 실제로서 빛고을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가 명실공히 빛나는 봄, 영원한 청춘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법정 스님이 전국을 돌며 진행했던 대중 강연을 묶은 책 ‘진짜 나를 찾아라’가 나왔다.

어른의 존재가 그리운 시절, 생생하게 전해지는 그의 육성 강연은 깊은 울림을 준다. 이번 책은 스님이 이끌었던 ‘맑고 향기롭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출간됐다. 지난 1994년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를 실천 덕목으로 삼아 만든 ‘맑고 향기롭게’ 취지문에서 스님은 “깨달음에 이르려면 두 가지 일을 스스로 실행해야한다. 하나는 자신을 속속들이 지켜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콩 반쪽이라도 나눠 갖는 실천행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책에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부산, 춘천 등 전국에서 진행했던 16개의 강연 내용이 담겼다. 맑고 향기롭게 지역 모임에서 행한 강연도 있고, 부산 가톨릭센터, 운문사 여름 결제, 길상사 설법전 불교문화강좌에

서 진행된 강연도 담겼다.

“수많은 생을 두고 쌓은 인연’(1996년 5월22일)에서는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송광사에서 조카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아, 이제 내 생명의 뿌리가 꺾였구나’라는 생각들었다”며 “모든 어머니들은 생명의 뿌리이고, 어머니는 생명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말한다.

따로 해설글이 붙은 1979년 부산중앙성당 강연은 “당국에서 수고롭게, 기관에서 와 있습니다. 정부를 비방하거나 체제에 도전하는 그런 언동은 없을 것으로 미리 말씀드리니까 안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에 이어 참가자들의 웃음소리가 터지는데 당사가 억압 통치의 시절임을 알게 해준다.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빅토르 프랑크의 ‘죽음의 수용소’에 등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제는 의미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나치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던 한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센터·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